

# 노인성 질환 클리닉 등 실버의료 특수 겨냥 노인병원 설립 잇따라

### 목포지역 1년새 병원·요양원 등 4곳 늘어

### 진도·완도 등 도서지역도 환자 수요 급증

전남도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로 문을 여는 병원들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 클리닉이나 요양 시설을 갖추는 등 고령화 시대 실버 의료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20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천172병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년새 병원 2곳과 요양원 2곳이 신설되는 등 548병상이 늘어났다.

또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증축

에 나서고 있어 병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도 지난해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3곳이 새로 문을 연데 이어 올해도 319병상 규모의 M병원이 개원하는 등 병원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매년 인구가 1천2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해남지역에서도 1년에 한 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어 현재 65개 병원이 개업하고 있다.

5개월 전 개원한 589병상 규모의

모 종합병원은 해남은 물론 완도와 진도 등 전남 서남부지역 노인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인구가 정체 상태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도 도내 일부 지역에 병원 개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면서 의료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근 골격계와 내과 등 노인성 질환 클리닉이나 요양 시설을 갖추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병원 명칭부터 효사랑이나 효자 등 노인 환자 전문 클리닉으로 개원, 농촌지역 노인성 환자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시방중함



## 강진에 전국 첫 '된장마을'

### 군동면 신기마을 메주 가공공장·발효실 조성

강진군에 전국 최초의 전통 '된장마을'이 들어섰다.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에 조성된 된장마을은 9억 원을 들여 메주 공장 및 발효실, 전시장 등을 조성했다.

신기 마을은 90년대 초부터 전통

방식으로 메주와 된장 등을 생산, 농외(農外)소득을 올려왔으며 이번에 현대식 설비를 더한 된장 특화 마을로 탈바꿈했다.

2천500여㎡ 부지에 530여㎡의 2층짜리 공장에는 작업장과 메주 발효실, 기계실 등 현대식 된장 가

공공장을 갖는다.

한옥으로 만든 전시판매장과 대형 향아리 200여 개를 놓을 수 있는 장독대도 또 다른 볼거리를 주고 있다.

신기마을은 앞으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거나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직접 메주와 고추장 등을 담가 보는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장 가동과 운영 등은 마을 부너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강진메주영농조합법인이 맡는다.

군은 메주와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매년 50t의 전통장류를 생산, 연간 5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광양·여수항 예인선 노조 파업

# 선박 입·출항 지연... 물류 차질

광양·여수항 예인선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선박들의 입·출항이 지연되는 등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과 여수산단 입주 기업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광양·여수항 예인선 노조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어 선박들의 입·출항이 늦어지고 있다.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1천 500t 급 이상 선박은 안전한 이·접안을 위해 예인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예인선 30척 가량이 파업에 가담하고 있다.

이때문에 현재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예인선은 8척 뿐으로 25만 t급 대형 유조선이 이·접안할 때는 다른 선박에 대한 예인 업무는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여수산단 또 석유화학 업체 관계자는 "25만 t급 대형 유조선은 이·접안하기 위해서는 예인선 4척과 6척이 각각 3-4시간 동안 동원돼야 한다"며 "예인선 노조가 파업을 계속함으로써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할 당국인 여수해양수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인선 4척과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5척을 지원 받아 차질없는 예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혀 파업상황에 대해

한 파악이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일부 선박의 입·출항이 지연되고 있으나 물류 소통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명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광산 '화폐전시회'

광산구 송정1동 주민센터가 오는 31일까지 '우리역사 에세이 화폐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통되던 엽전과 상평통보를 비롯해 중국 진시황제 시절의 돈과 북한 화폐 등 600여 점이 선 보이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돼지고기 2인분 이하는 안팔아"

### 여수시내 일부 식당 '배짱판매' 외지인들 불만

여수시내 일부 식당에서 2인분 이하의 돼지고기는 판매하지 않고 있어 손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여서동과 문수동, 국동 등 여수지역 일부 돼지고기 식당에서는 3인분 이상만 판매하고 있다.

이때문에 여수를 처음 찾는 외지 관광객들과 마찰을 빚는 등 지역 이 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권모(28·광주광역시)씨는 "2인분을 주문하자 종업원이 '3인분을 시켜야 한다'고 해 화답했다"고 불

쾌했다.

특히 일부 식당들은 여수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어 관계 당국이 이같은 판매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해당 업소에서는 "참 숲을 이용해 고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원가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 2인분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한달에 숯구입비용만 100만원이 훨씬 넘고 있으나 최고 품질의 고기로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짧게 질의해 주세요" "10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했던 의원이 보충질의 시간에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흐름을 끊기도 했다. 동료 의원들조차 질의 내용과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장의 진행방식도 지적 받아 마땅하다. 무한정 시간을 끌면 마이크를 끄는 등 제재조치를 취해야 옳다.

깊이 없는 질문에 심도 있는 담

## 실망스런 나주시의회 시정질의

지적하는 것은 의회의 권리이자 책무다.

그러나 이번 나주시의원들의 시정질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합기식' 의정 질의가 되



변이 나올리 만무하다. 혁신도시 착공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시정질의는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합기식' 의정 질의가 되 풀이되는 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발전 전략을 기대하기 힘들다.

내년부터는 의정비도 대폭 인상된다. 지역민들은 시의원들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chung@kwangju.co.kr

## 화순 능주면에 '개발형 행복마을' 조성

### 내년부터 5년간 457억 투입

화순군 능주면에 '개발형 행복마을'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14일 화순군청에서 박준영 지사, 전완준 화순군수, 이동진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능주면 소재지 개발형 행복마을 조성 추진 협약식'을 갖고 능주면 정주 생활 환경의 종합 정비 및 확충에 착

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4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다목적 복지회관 및 마을 하수관거 정비, 신규 택지개발 등이 시행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능주면의 역사성을 살린 목사골 복원화 사업 및 향토 음식촌 조성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사미컬체질식**

66살부터 먹는 두끼 식사가 생애이다

● 영양가 풍부  
● 소화하기 쉽다  
●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주)상현로하스  
TEL. 1566-9194

**저렴한 유가 현금 목돈 대출**

**겨울 냉방고민 끝**

**초절전형 냉방기** **미쓰비시** 하자!

무이자 12개월 연금 상환 50% 할인

080-372-2900